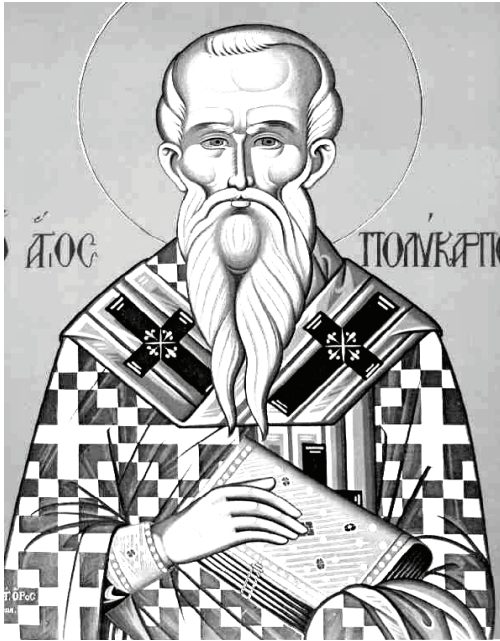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폴리카르포스 즈미르나의 주교순교자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뜨리오디온 시작

한국의 첫 번째 성찬예배 기념일

성 테오도로스 대순교자

제5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시기송 / 220, B 270

• 사도경 : II 디모테오 3,10-15 / 봉독서 407

• 복음경 : 루가 18,10-14 / 133, B 8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폴리카르포스 즈미르나의 주교순교자

우리 정교회는 2월 23일을 초대교회의 주교순교자 중 한 분이신 즈미르나의 대주교 성 폴리카르포스(2세기)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 폴리카르포스의 순교 일화를 전해주는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서를 살펴보면 그분의 거룩함, 친절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부정하라 강요받았을 때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여 년간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

금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욕하고 모독하란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헌신과 높은 용기를 어떻게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박해에 굴복하여 주님의 이름과 거룩한 신앙을 부정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며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

오늘은 사순절 전 프리오디온 기간 첫 주 일로서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의 비유를 드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의인의 기준과 세상이 보는 의인의 기준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세상에서는 첫째가는 사람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꼴찌가 있고, 그와 반대로 세상이 볼 때 꼴찌라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첫째인 사람이 있다. 성서를 읽다보면 특히 구약성서를 읽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여러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왕을 세우고 부인을 맞아들이게 하고 장자를 설정하는 과정 등 도덕과 윤리 면으로 부적절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서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자주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이 볼 때 올바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그를 알게 하는 계기를 주셨을 때 바로 그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권력으로 하느님을 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죄의 깨달음을 알게 되어 그것을 인정하여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이심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세리와 같이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

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로 영적 깊이로 나아가 하느님을 더욱 알게 되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네”하고 순종하며 따른다.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느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신비의 말씀을 자신의 머리모만 생각하고 풀어나가려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기 힘들다. 부질없는 이론과 논쟁으로 결국은 여러 인간적인 분쟁의 원인을 낳게 할 뿐이다. 열정이 있는 듯 보이지만 헛된 지식과 행동만 보일 뿐이지 결국은 교만과 자만에 빠져 남을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거만을 부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남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듯 착각에 빠지고 만다.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느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로마 10,2-3)

세상에서는 일등인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꼴찌인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 인정받더라도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같은 영적 겸손의 덕을 쌓고 보이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프리오디온

대사순절을 준비하는 네 주일

대사순절 전의 삼 주 동안 겸손과 심판, 회개, 용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는 교인들이 이 신성한 기간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한다. 프리오디온은 특별한 네 주일로 이루어진다.



1. 먼저 올해 2월 17일은 **세리와 바리새 사람 주일**이다.(루가 18,10-14)

이 주일에는 회개를 위한 핵심적인 자세가 겸손임을 강조한다. 스스로 완전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 대신에 세리의 내적인 가난(곧, 마음이 가난한 것)을 배우라고 말한다.



2. 2월 24일은 **탕자 주일**이다.(루가 15,11-32)

이 주일에는 세상 속에 유배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친다. 이 비유는 한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자비를 보여준다. 대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죄를 씻고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이 주일의 토요일은 ‘영혼 토요일’로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간직한 채 잠드신 분들을 특별한 예식 안에서 기억한다. 이때 교인들은 준비한 ‘폴리바’ (추도식을 위한 약밥)와 함께 안식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사제에게 가져온다.



3. 3월 3일은 **심판 주일(금욕 주일)**이다.(마태오 25,31-46)

이 주일에는 최후의 심판을 강조한다. 우리 각자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책임이 핵심이다. 이날까지만 육고기를 먹고, 그 뒤로는 부활절까지 먹지 않는다. 대신에 이 주간에는 달걀, 치즈, 우유 등 유제품이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허용된다.



4. 3월 10일은 **용서 주일**(유제품을 마지막으로 먹는 날)이다.(마태오 6,14-21)

이 주일에는 용서를 강조하며, 다른 이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니, 우리는 아담과 이브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된다. 이날이 대사순절 준비 기간인 프리오디온의 마지막 날이며, 다음날부터 대사순절 금식이 시작된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프리오디온 시작

오늘 2월 17일 주일부터 프리오디온 기간이 시작됩니다. 프리오디온 기간은 우리 정교회의 연중 전례 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례 시기입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이번 프리오디온 기간을 통해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부활 대축일을 향한 영적 순례를 행합시다. 프리오디온 첫 주간은 금식이 해제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설날맞이 세배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 성찬예배 후 모든 신자들이 신부님께 세배를 드렸고, 신부님께서 덕담으로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크리스토퍼 사제 부임

미국에서 포티니 사모와 자녀 2명과 함께 오신 크리스토퍼 신부님이 지난 주일(10일)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의 축복으로 울산 성당에 부임하셨습니다. 대주교님은 인사 말씀을 통해 신부님의 사목과 지도로 울산 성당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사단 축복식

지난 주일(10일) 복사단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는 축복식 강론을 통해 복사들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사제를 도우면서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고귀한 임무임을 강조하시고 몸과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유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에 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축복을 받은 복사들은 '사랑'에 관한 고린토 전서 13장의 말씀을 나누어 읽으며 고귀한 사명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날 축복을 받은 8명의 복사단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본석 니콜라스, 임재홍 미론, 이승민 마르코, 왕현빈 다니엘, 조조, 필로, 문예람 가브리엘, 니콜라이.

■설날맞이 세배

지난 주일(10일) 성찬예배와 사랑의 오찬 후에 설날을 맞이하여 신자들은 대주교님과 성직자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었고, 대주교님께서 세뱃돈을 나누어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